

# 목회자 부셔와 그의 목회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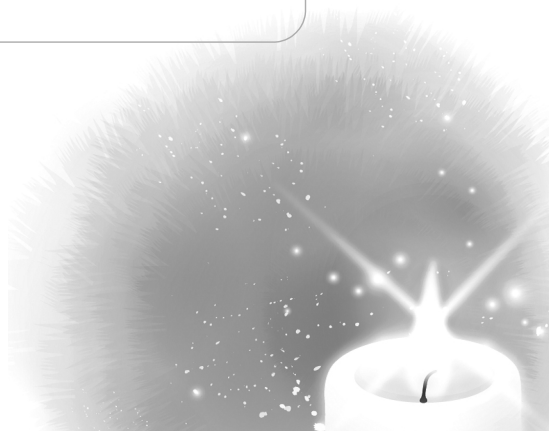
## Bucer as a Pastor and His Pastoral Theology

황대우

고신대 교양학부 조교수

### 목차

1. 들어가면서 | 179
2. 목회자 부셔 | 182
  - 2.1. 스트라스부르의 1520년대 종교개혁 | 182
  - 2.2. 스트라스부르의 1530년대 종교개혁 | 185
  - 2.3. 스트라스부르의 1540년대 종교개혁 | 189
  - 2.4. 부셔와 영국 종교개혁 | 196
3. 부셔의 목회지론 | 198
  - 3.1. 교회직분과 목회자 | 199
  - 3.2. 목회의 주요 사역 | 201
4. 나오면서 | 207



## 목회자 부셔와 그의 목회지론

이 논문은 목회자로서 마르틴 부셔와 그의 목회지론을 다룬 것이다. 부셔는 16세기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로 유명한데, 그 도시는 종교개혁 당시 독일 남부 팔츠의 수도였다. 부셔는 그 도시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스트라스부르 도시의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도시를 개혁하는 일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예컨대 쾰른, 울름, 헤센 등지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도 헌신적이었다.

또한 부셔는 교회연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단지 개신교도들 사이의 연합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진영과 로마가톨릭교회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점에서 부셔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최고의 교회연합운동가로 불린다. 하지만 부셔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은 목사다. 왜냐하면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목회와 목회의 원리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최초의 저술가이기 때문이다.

1538년에 출간된 <목회와 목사의 적합한 역할>이라는 저술이 바로 그것인데, 이 책은 부씨의 대표적인 3가지 저술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16세기에 출간된 목회에 관한 최고의 논문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저술에서 부씨는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성경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부씨가 목회 원리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그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다섯 가지 상태로 분류하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 버려진 불신자, 교회 안에서 치리된 신자, 상처 입은 신자, 약하고 병든 신자, 건강하고 헌신적인 신자 등이다. 부씨에 따르면 교회 목회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이고 목회의 목표는 신자들을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목회 원리는 사랑이라고 제시한다.

*Bucer as a Pastor and His  
Pastoral Theology*

주요어

부써, 종교개혁, 종교개혁자, 목사, 목회, 스트라스부르, 목회사역, 사랑

## Abstract

### Bucer as a Pastor and His Pastoral Theology

Prof. Dr. DaeWoo Hwang

This article deals with Martin Bucer as a pastor and his doctrine of the pastoral cure. Martin Bucer is famous as the Reformer of Strasbourg in 16th century, which was at that time the capital of Palatinate, a region in southwestern Germany. He tried his best to reform that city, strictly speaking to renew the Church of Strasbourg. He was busy not only to reform Strasbourg, but also the other cities or province, Cologne, Ulm and Hesse etc.

He brought all his energies to bear upon the unity of the Churches not only between the Protestants, but also between the reformed camp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is point Martin Bucer is called the true ecumenist of the Reformers. But for him, the pastor is the most appropriate name, because he is the first Reformer who gave in detail the description of the ecclesiastical ministry and the principles of the pastoral cure.

In 1538, Bucer published a book titled *The True Care of Souls and the Proper Role of the Pastor*, one of his major three writings. It is sure that his book was one of the noblest pastoral treatises in the 16th century. In his work about the true care of souls, Bucer suggeste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church of Strasbourg

to be oriented towards biblical ministry. The pastoral principles are there in detail described.

In his treatise, Bucer classifies the Christian souls as five states of sheep, that is, the abandoned unbelievers outside the Church, the excommunicated believers of the Church, the hurted and injured believers, the weak and sick believers, and the healthy and devout believers. According to Bucer, the church ministry is the pastoral care for the Christian souls and the goal of the ministry is to guide the believers in repentance and forgiveness. The best of the Ministry to accomplish this principle is love.

**Keywords** | Bucer, Reformation, Reformer, pastor, care of souls, Strasbourg, ministry, love

## 1. 들어가면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유럽에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기독교는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요, 나아가 서구 유럽 세계의 모든 것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구 유럽은 기독교 사회 즉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Corpus Christianorum)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종교개혁 이해의 열쇠다. 16세기 서부유럽 전체가 기독교 공동체적 사회였다는 사실은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만의 개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알려준다.

16세기는 기독교 위에 건설된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혼동의 대격변기이고, 그 중심에는 태풍의 핵처럼 종교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세계를 형성한 유럽 사회 전체의 변혁을 초래한 세계사의 전환기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의 개혁을 의미하는 기독교 교리와 삶, 그리고 교회 제도의 개혁이다. 중세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배가 종교개혁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예배가 왜곡된 기독교 교리와 삶과 제도의 총화였기 때문이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이므로 교회개혁으로서 종교개혁은 목회개혁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목회’는 영어로 ‘The cure of souls’<sup>1)</sup>이고 독어로는 ‘Seelsorge’<sup>2)</sup>인데, ‘영혼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의 의미대로라면 목회를 수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무를 맡은 설교자”(der beamtete Prediger) 즉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1) John T.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London: SCM Press LTD, 1952).

2) Eduard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46).

오히려 “교회 전체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목회를 성직자의 전유물로 간주한 로마가톨릭과는 달리, 목사와 평신도의 협력 사역으로 주장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셔와 제네바의 요한 칼빈인데, 이 두 종교개혁자의 교회정치 사상을 결정적으로 반영한 것이 곧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특징인 당회 중심의 목회다.<sup>4)</sup>

부셔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그가 스트라스부르의 공적 설교자가 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자 그의 첫 작품인 『아무도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1523),<sup>5)</sup> 칼빈이 스트라스부르 사역을 시작하던 해에 출간된 『참된 목회와 바른 목회사역에 관하여: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워지고 시행되어야 하는가?』(1538),<sup>6)</sup> 마지막 저술로 1551년에 저술되었으나 그의

3)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13-14: “...: Es ist nicht nur der beamtete Prediger, der Seelsorge zu[14] treiben hat. Sie liegt ihm zwar gewiß in einer besondern Weise ob, aber grundsätzlich ist die ganze Gemeinde daran beteiligt und dazu aufgerufen.”

4) 참고. Wilhelm Pauck,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Glencoe/Boston: The Free Press/Beacon Press, 1950), 84-85; Robert M. Kingdon, “Consistory,” in Hans J. Hillerbrand,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vol. 1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16-17. 여기서 킹던은 칼빈의 제안으로 1541년에 설립된 제네바의 교회치리회(Consistorium; Consistoire)를 오늘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기원으로 설명하면서 부셔나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에 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빌헬름 파우크의 주장과 같이 교회치리회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한 3년(1538-1541) 동안 부셔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특히 부셔의 대표적인 저술 가운데 하나인 1538년의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 = De vera cura animarum)로부터 받은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5) 원문 제목과 내용용 다음 참조. “Das ym selbs niemant, sonder anderen leben soll, und wie der mensch dahyn kummen mog 1523,” in Robert Stupperich,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and 7. *Schriften der Jahre 1530-1524*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0), 29-67. 이후로는 ‘MBDS 1 (Das ym selfs niemant)’로 인용. 한글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황대우 편역, 『삶, 나아인 남을 위하여: 마르틴 부셔의 기독교 윤리』(서울: SFC출판부, 2007<sup>2)</sup>, 13-68.



사후에야 비로소 출간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하여』(1557)<sup>7)</sup> 등 3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부씨 종교개혁 사역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에 각각 저술된 이 세 권의 중심 주제는 사랑인데, 부씨의 목회철학에 따르면 이 사랑은 목회의 알파와 오메가, 즉 목회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며 목적이다.<sup>8)</sup> 이 세 권 가운데 부씨가 자신의 목회지론을 가장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한 책은 1538년의 저술인데, 맥닐의 평가에 따르면 이 책은 종교개혁시대에 출간된 목회 저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저술이다.<sup>9)</sup> 본 논고는 이 책을 중심으로 부씨의 목회지론을 살필 것이다.

6) Robert Stupperich, ed., “Von der waren Seelsorge und dem rechten Hirtendienst, wie derselbige in der Kirchen Christi bestellt und verrichtet werden solle 1538,” in Robert Stupperich,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Band 7. *Schriften der Jahre 1538-1539*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4), 90-245. 이후로는 ‘MBDS 7, 90-245(Von der waren Seelsorge)’로 인용.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 (용인: 킹덤북스, 2014).

7) François Wendel, ed., *Martini Bvceri Opera Latina XV. De regno Christi* (Gütersloh: C. Bertelsmann Verlag, 1955). 이후로는 ‘MBDL 15. De regno Christi’로 인용.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이은선 & 최윤배 역, 『멜란히톤과 부처』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20-496. 최윤배의 한글 번역은 영어 번역의 중역이므로 영어 번역처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8) 장 다니엘 버누아의 분석에 따르면 칼빈의 교회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트라스 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씨가 제시한 목회 원리는 ‘형제 사랑’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그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참고. Jean-Daniel Benoît, *Direction spirituelle et protestantisme. Étude sur la légitimité d’une direction protestante* (Paris: Librairie Félix Alcan, 1940), 89.

9)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177.

## 2. 목회자 부써

### 2.1. 스트라스부르의 1520년대 종교개혁

도미니쿠스수도원 시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품을 탐독하는 토마스주의자였으나, 이후 에라스무스의 글에 심취하여 인문주의자가 된 부써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가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변호하던 그 자리에서 종교개혁을 수용할 결심을 함으로써 루터주의자가 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전향한 부써의 관점에서 당시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와 루터의 종교개혁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 이후, 부써는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보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더욱 굳건하게 지지했다.

부써가 자신에게 종교개혁자로서의 명성을 얻도록 해준 독일 남부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한 것은 1523년 5월 중순이었다.<sup>10)</sup> 같은 해에 이 도시로 초대되어 온 두 명의 종교개혁자는 볼프강 카피토(Wolfgang Capito) 박사와 카스파르 헤디오(Kaspar Hedio)였다. 부써는 이전에 도미니쿠스 수도사 신분이었으나 1521년 4월 29일에 슈파이어(Speyer) 부주교 안톤 엔겔브레흐트(Anton Engelbrecht) 덕분에 절차를 밟아 수도원 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sup>11)</sup> 1522년에 수녀 엘리자베스 질버라이즌(Elisabeth Silbereisen)과 결혼한 부써는 바이센부르크(weißenburg) 시의회 의 지지를 받아 그곳의 설교자로 종교개혁을 도입하려했으나 실패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아버지가 사는 스트라스부르로 야반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2)</sup>

10) Martin Greschat, *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 Zeit 1491-1551* (München: Verlag C.H.Beck, 1990), 67.

11) Greschat, *Martin Bucer*, 47.

독일 남부 도시 스트라스부르는 부씨가 도착할 당시 이미 종교개혁의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인문주의자 뵘펠링(Wimpfeling) 등의 영향으로 반성직주의(Anticlericalism)가 만연했고, 1519년에 이미 루터의 저술 가운데 6권, 이후 1년 만에 16권이 그 도시에서 출간될 정도로 루터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또한 루터를 옹호하면서 순수한 복음만을 설교하기 시작한 대성당 설교자 마티아스 켈(Mathias Zell)과 같은 설교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개혁을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시의회는 부씨가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을 당시 수녀와 결혼한 파괴 수도사였으므로 그를 환영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티아스 켈의 배려 덕분에 그의 집에서 부씨는 비공식적인 부사제로 디모테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등을 매일 1시간씩 라틴어로 강의할 수 있었다. 밀려드는 많은 청중들을 위해 성 로렌츠(St. Lorenz) 교구성당에서 베드로전후서와 요한복음을 독일어로 강의했는데, 이 때 시의회가 이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한편 부씨는 바로 이 시기에 자신의 첫 종교개혁 신학 저술인 “나 아닌 남을 위하여”를 출간했다.<sup>14)</sup>

1523년 연말에는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성 도마(St. Thomas)성당의 국민사제 안톤 피언(Anton Fim)이 함께 살던 여인과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거행한 사건과, 한 달 뒤에 이 결혼의 주례를 맡은 켈 또한 유명한 종교개혁 여성 카타리나 슈츠(Katharina Schütz)와 결혼한 사건이다. 1524년에는 대성당의 설교자 헤디오와 다수의 다른 사제들이 줄지어 결혼했고, 마침내 8월에는 성 도마성당의 주임신부 카피토 마저도 부씨가 주관한 설교로 결혼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순결의 맹세를 깨뜨린 성직자는 더 이상 부씨 혼자가 아니었다. 가난한 정원사 길드에 속한 사람들이

12) Greschat, *Martin Bucer*, 57.

13) Greschat, *Martin Bucer*, 62-66.

14) Greschat, *Martin Bucer*, 68.

부씨를 성 아우렐리언(St. Aurelien)성당의 정식 설교자로 임명해줄 것을 시의회에 직접 청원한 결과, 부씨는 우여곡절 끝에 8월 24일 시의회 승인으로 주일 오후와 축일의 예배를 담당하는 공적 목사가 되었으나, 카피토와 헤디오의 지위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보잘 것 없는 자리였다.<sup>15)</sup>

신구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도시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수도회 관구장 콘라트 트레거(Konrad Treger)가 도시의 개혁을 주도하는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이단과 배신자로 비난하는 글을 출간하자, 흥분한 시민들은 폭도로 변해 수도원에 난입하고 형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트레거를 포함한 종교개혁의 반대 세력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시의회에 넘기면서 그들을 투옥하도록 압박했는데, 이런 폭동은 종교개혁자들이 미리 경고한 것처럼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1524년 10월 12일, 석방된 트레거가 도시를 떠남으로써 전통을 고수하려던 구세력인 로마가톨릭 지지자들이 종교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종결되었다.<sup>16)</sup>

교회와 교회공의회가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트레거에 반대하는 글을 통해 부씨는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절대적 권위임을 천명하고 참 교회 역시 가시적 교회인 로마가톨릭과 동일시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7)</sup> 로마가톨릭의 구습을 철폐한 스트라스부르는 새로운 예배형식의 도입이 시급했기 때문에 1524년 12월 31일에 출간된 부씨의 “근거와 이유”(Grund und Ursach)를 통해 미사가 제사라는 로마가톨릭 사상을 공격했다. 그리고 사제의 예배용 의복과 제단 및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형상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소금, 세례용 성수와 양초를 제거하고 대신에 간단한 탁자와

15) Greschat, *Martin Bucer*, 71-73.

16) Greschat, *Martin Bucer*, 73-75.

17) 원문 제목과 내용은 다음 참조. “Ein kurtzer wahrhaftiger bericht von Disputationen und gantzen handel, so zwischen Cunrat Treger, Provincial der Augustiner, und den predigern des Evangelii zu Straßburg sich begeben hat,” in Robert Stupperich, ed., *MBDS 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2), 15-173.

기도와 독일어 시편찬송 및 설교만으로 간소화된 대대적인 예배개혁을 소개했다.<sup>18)</sup>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시의회가 드디어 1525년 5월 6일에 도시의 모든 미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성당과 세 곳의 수도원부속성당에서 집행되는 매일의 장엄미사를 존속시켰다.<sup>19)</sup>

1528년 1월 6일은 베른(Bern) 시정부가 주최한 공개적인 종교논쟁의 날이었다. 이 논쟁에 참석하기 위해 부씨와 카피토는 1월 2일에 스트라스부르를 출발하여 5일(주일)에 베른에 도착했다. 6일에 시작하여 26일까지 지속된 베른논쟁은 츠빙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완승함으로써 모든 미사와 제단과 형상 등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미신의 원천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선언했다. 부씨는 베른논쟁에서 선보인 그의 놀라운 논쟁과 설교의 기술 덕분에 종교개혁자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베른논쟁의 결과는 주변 지역이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스트라스부르도 이 영향을 받아, 결국 1529년 2월 21일(주일), 시정부가 그동안 1525년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던 미사마저도 모두 폐지한다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도시에 합류했다.<sup>20)</sup>

## 2.2. 스트라스부르의 1530년대 종교개혁

시의회가 교회에서 성상과 제단 부속물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1530년 1월 5일에 가셔야 가능했다.<sup>21)</sup> 1531년 10월 30일에는 시의회가 21인의

---

18) 원문 제목과 내용은 다음 참조. “Grund und ursach auß gotlicher schriff der netiwerungen an dem nachtmal des herren, so man die Mess nennet, Tauff, Feyrtagen, bildern und gesang in der gemein Christi, wann die zusammenkompt, durch und auff das wort gottes zu Straßburg fürgenommen 1524,” in *MBDS* 1, 185-278.

19) Greschat, *Martin Bucer*, 76.

20) Hastings Eells, *Martin Buc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1), 50-53.

‘교구감독관’(Kirchspielpfleger) 혹은 ‘교회감독관’(Kirchenpfleger)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라스부르 교회 전체를 관리 감독하도록 허락했는데, 이 교회치리회는 7개의 교구에서 각각 3명씩, 즉 시의원 가운데 1명씩, 300인회 가운데 1명씩, 교구원 가운데 1명씩 임명된 자들로 구성되었다. 교회치리회의 주요 임무는 목사와 목사 조수들의 생활과 가르침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예배와 성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지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 감시 감독하며, 교구에서 발생하는 교회관련 제반 문제들을 목사회와 의논하는 것이었으나,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sup>22)</sup>

1529년 이후 새로운 망명객들 가운데 재세례파와 신령주의자 등과 같은 분파들의 수가 급증하여 약 2000명에 달할 때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임박한 종말의 도래를 지지했는데, 이들의 신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종말 사상에 대한 설교는 시민들을 신앙적 교리적 혼란에 빠뜨렸고 건전한 복음주의를 위협했다.<sup>23)</sup> 시의회는 참된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분파들의 분열주의가 시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둔감했다.

하지만 부שר을 비롯한 종교개혁 지지자들은 이단적 가르침과 무질서를 설교하는 분파들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웠으므로 1532년 11월 30일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 교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과 분파들의 교리와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533년 6월부터 1534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중요한 종교회의가 개최되었고, 분파들에 대한 교리적 분쟁은 1534년 3월 4일에 시의회가 부שר의 제안에 따라 1530년의 “4개 도시 신앙고백”(Confessio tetrapolitana)과 1533년

21) Greschat, *Martin Bucer*, 127.

22) Jean Rott, “The Strasbourg Kirchenpfleger and parish discipline: theory and practice,” in David F. Wright, ed., *Martin Bucer: Reforming Church and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22-28.

23) Greschat, *Martin Bucer*, 129-31.

에 작성된 부씨의 “16개 조항”을 스트라스부르의 공식적인 교회 교리의 규범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또한 4월 13일에는 이 문서를 받아들인지 아니면 8일 안에 도시를 떠나도록 명령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sup>24)</sup>

1534년 봄에는 부씨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Catechismus)가 출간되었고 12월에는 새로운 교회법이 완성되고 인쇄되었다. 이 교회법에 의하면 시의회가 목사를 임명하고, 교회감독관(Kirchenpfleger)과 더불어 모든 목사를 감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회의(Kirchenkonvent)뿐만 아니라, 격주로 모이는 목사들과 교회감독자들의 모임까지도 감독할 수 있었는데, 이 모임의 의장은 부씨였다. 이 새로운 교회법은 1535년 2월 7일 길드 홀에서 큰 소리로 낭독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sup>25)</sup>

1535년부터 시의회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회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종교개혁 설교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교회감독관들도 교회의 독립적인 치리에 의한 교회 건설이라는 부씨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시의회가 임명한 관리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위정자들을 위한 정치적 도덕적 감시자라는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6)</sup> 한편 시민들은 개혁에 미온적이며 질서를 강조하는 시의회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타협적인 종교개혁자들보다는,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규율을 실천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재세례파에게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기독교 사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의 스트라스부르 시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부씨의 무게 중심이 1530년대 후반부터는, 지나치게 시의회에 의존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24) Greschat, *Martin Bucer*, 132-134.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와 4개 도시 신앙고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astings Eells, *Martin Bucer*, 99-108.

25) Greschat, *Martin Bucer*, 137.

26) Greschat, *Martin Bucer*, 153.

이런 무게 중심의 이동은 1538년에 출간된 부씨의 목회에 관한 저술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책에서 부씨는 스스로 교회라 주장하는 “수많은 분파와 이단”(vil secten und rotten)이 사탄에게서 유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참 교제로부터 떼어내는”(von der waren gemeynschafft Christi abgerissen) 분리주의자들과 단언하면서 교회일치, 즉 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했다.<sup>27)</sup> 이 논문에 대한 시의회의 반응은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았다.<sup>28)</sup>

부씨는 자신의 1534년판 교리교육서 즉 문답식 신앙교육서를 1537년에는 형식과 내용 모두 보다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훨씬 실용적으로 개정했다.<sup>29)</sup> 이것 역시 그가 지키려고 했던 교회의 영적 독립성과 무관하지 않다. 1538년 이후로 여러 교구에서는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한 후 개인적인 신앙고백까지 끝내면 목사가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교회와 정부는 예배 중에 유아세례를 주기로 합의했으며 1540년 5월 18일에는 견진성사를 포기했다.<sup>30)</sup> 하지만 교회의 전권을 손에 쥔 정부가 종교개혁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부씨는 교회가 영적 생활과 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에 예속된 정치적 행정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1530년대 말부터 그리스도인 모두 개인적으로 책임감과 독립심을 갖도록 장려했다.

27) MBDS 7 (*Von der waren Seelsorge*), 93-96. 95 난외주: “Eynigkeyt der kirchen steht nit in gleichen ceremonien, sonder in gleicher lere, glauben und rechtem brauch der Sacrament.” (교회의 통일성은 동일한 의식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교리와 신앙과 올바른 성례 집행에 있다.)

28) Greschat, *Martin Bucer*, 160.

29) 부씨가 작성한 1537년의 신앙교육서 원문 제목은 다음 참조. “Der kürtzter Catechismus und erklärung der XII stücken Christlichs glaubens. Der Vatter und Der Zehen gepotten. 1537,” in MBDS 6/3, 175-223.

30) Greschat, *Martin Bucer*, 154.



### 2.3. 스트라스부르의 1540년대 종교개혁

1540년대 초반은 부씨에게 인생 최대의 격변기였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약 1년 동안 스트라스부르 인구 가운데 3천명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이 부씨의 집안에서도 최소 9명, 즉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자녀 5명, 하인 2명, 외국인 하숙생 1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닥친 개인적인 재앙을 부씨는 자신과 가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이해했다.<sup>31)</sup> 두 번째 원인은 부씨가 주도했던 교회연합운동의 실패였다. 교회연합을 위해 1538-1541년 사이에 로마가톨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이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하게나우(Hagenau), 보름스(Worms),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등지에서 여러 차례 모였으나 양측의 화해는커녕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부씨에 대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불신만 남았기 때문이다.<sup>32)</sup>

1542년 4월 16일에 부씨는 로젠블라트(Rosenblatt) 출신의 비브란디스(Wibrandis)와 재혼했는데, 그녀는 1541년 11월 4일에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네 번째 남편 볼프강 카피토 박사의 아내였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바젤의 신학자 루터비히 켈러(Ludwig Keller = Cellarius)였고, 두 번째 남편은 바젤의 종교개혁자 요한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 Oekolampad)였다. 비브란디스는 부씨보다 오래 살았는데, 1564년 11월 1일에 바젤에서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sup>33)</sup>

31) Greschat, *Martin Bucer*, 209.

32) 부씨는 16세기 교회연합운동의 선구적 종교개혁자로 유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황대우 편역,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89-101; Greschat, *Martin Bucer*, 177-92; Cornelis Augustijn, *De godsdienstgesprekken tussen Rooms-katholieken en Protestanten van 1538 tot 1541* (Haarlem: De Erven F. Bohn N.V., 1967); Wilhelm Heinrich Neuser, ed., *Die Vorbereitung der Religionsgespräche von Worms und Regensburg 1540/41*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4).

33) Greschat, *Martin Bucer*, 210.

피터 마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가 루카(Lucca)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보낸 1542년 12월 25일자 편지에서 부ச்ச에 대해 길게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은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성실한 목회자였는지 그 진면모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자마다 부ச்ச은 우리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환영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17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관찰한 바, 그의 가르침과 삶 모두에서 놀라운 경건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그의 집이 마치 구호소 같았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탁은 사치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는 근검절약의 모범이었습니다... 식사 전후에는 서신서 가운데 일부를 읽었는데, 그것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대화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본 그의 다른 활동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는 항상 분주했는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일, 교회 업무를 바르게 집행함으로써 목사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거룩한 모범으로 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 학교들을 돌봄으로써 복음을 증진하고 교회를 돕는 모든 사역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 부지런히 시의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자극하여 기독교 경건에 이르도록 설득하는 일 등입니다. 그가 법정을 방문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그의 하루 전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말하자면) 제가 밤중에 깨었을 때 그가 깨어 있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다음 날 하루 동안 이야기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했고, 그 시간에 그는 낮

시간의 활동을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sup>34)</sup>

1543년에 부씨는 자신의 세 번째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다.<sup>35)</sup> 그는 오래 전부터 교회의 영적 치리가 목사의 직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특히 1538년의 『참된 목회와 바른 목회사역에 관하여』에서 그 필요성을 상세하게 주장했다. 교회가 시정부의 간섭 없이 신학과 교회와 윤리에 관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치적 모임이 드디어 1544년 6월에 조직되었다. 이 모임의 종신 회장으로 부씨와 헤디오가 선출되었다.<sup>36)</sup> 당시 시정부가 임명한 21명의 ‘교회감독관’이 각 교구의 교회들에 대한 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부씨는 이미 이 때 교회 치리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교구마다 “기독교 공동체”(Christliche Gemeinschaft)라는 모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sup>37)</sup>

34) John Patrick Donnelly, Ed. & trans., *Life, Letters, and Sermons: Peter Martyr Vermigli* (The Peter Martyr Library; ser. 1, vol. 5) (Kirksville: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ress, 1999), 96-97(To All the Faithful of the Church of Lucca Called to be Saints). 원문 확인 없이 영어 번역을 증역함.

35) 원문 제목과 내용은 다음 참조. “Der Kürtzer Catechismus. Das ist Christliche underweisung von den Articklen unsers Glaubens, Vatter unser, Zehen gebotten, H. Sacramenten Und anderen Christlichen Kirchengzucht und ubungen. Für die Schuler und andere kinder zu Strasburg. 1543,” in *MBDS* 6/3, 225-65.

36) Greschat, *Martin Bucer*, 212.

37) 이러한 계획을 밝힌 부씨의 글은 “교회의 결핍과 타락에 관하여, 그리고 이것을 향상시킬 방법에 관하여”(Von der Kirchen mengel vnnd fähl vnnd wie dieselben zu verbessern)인데, 여기서 그는 “기독교(적인)[=그리스도인(의)] 공동체[=교제]”로 번역 가능한 용어인 “Christliche gemeinschaftt”와 “Christenliche gemeinschaftt”를 사용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Robert Stupperich, ed., *MBDS* 17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1), 184-185(*Von der Kirchen mengel vnnd fähl*. 1546년 1월 6일). 부씨의 글이 작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그 시기를 벨라어디(Bellardi)는 아래 자신의 책 22-24쪽에서 1545년에서 1546년으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으로, 함만(Hammann)은 아래 자신의 책 431-33쪽에서 1546년 여름 혹은 초가을로, 버넷(Burnett)은 아래 자신의 책 181쪽 각주 6에서 1546년 늦은 어느 날로

1545년 12월 13일에는 단 한 명의 개신교도도 참석하지 않은 로마가톨릭교도들만의 트렌트(Trent)공의회가 개막되었고, 1546년 2월 18일에는 루터가 자신이 태어난 아이스레벤(Eisleben) 시에서 사망했는데, “동시에 발생하여 두 가지 사건은 한 전환기적 시대의 종말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38)</sup> 부씨는 몇몇 개혁 성향을 가진 로마가톨릭 신학자들과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트렌트공의회에 토론을 “가장 역겨운 교황의 혐오스러움”으로 묘사하며 맹렬하게 비난했던 반면에, 자신을 불신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를 “가장 거룩하고 유능한 복음의 도구”로 인정하며 깊이 애도했다.<sup>39)</sup>

루터가 죽은 후, 역사적으로 실제 종교개혁의 전환기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1546-1547년 사이에 벌어진 슈말칼덴 전쟁(Schmalkaldischer Krieg = Schmalkaldic War)의 발발과 결과가 그것이었다. 1531년 2월 27일에 헤센의 영주 필립과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Johann Friedrich) 1세가 주도하여

---

각각 추정한다. 버넷은 자신의 책 180-81쪽에서 주장하기를, 벨라어디가 일반 회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그 운동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가정한 것은 그 연구의 심각한 약점이다. 또한 부씨가 ‘기독교 공동체’라는 용어를 구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특정 모임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통념은 벨라어디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동일한 부씨 글에서 그 용어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참고. Werner Bellardi, *Die Geschichte der "Christlichen Gemeinschaft" in Strassburg (146/1550). Der Versuch einer "zweiten Reformation"* (Leipzig: M. Heinsius Nachfolger, 1934); Gottfried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Le Projet d'Église du Réformateur Martin Bucer (1491-1551)*, Histoire et Société 3 (Geneva: Labor et Fides, 1984), 363-86; Amy Nelson Burnett, *The Yoke of Christ: Martin Bucer and Christian Discipline*,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26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4), 180-207. “Christliche Gemeinschaft”라는 위 부씨 글의 작성 시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참조. Marc Lienhard & Stephen F. Nelson & Hans Georg Rott, eds., *Quellen zur Geschichte der Täufer XVI. Band Elsaß, IV. Teil. Stadt Straßburg 1543-155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8), 200-202(=no. 1526).

38) Greschat, *Martin Bucer*, 214: “Beide Ereignisse zusammen signalisieren das Ende einer Epoche.”

39) Greschat, *Martin Bucer*, 214-15.

튀링기아(Thuringia)의 슈말칼덴에서 결성한 개신교 군사 동맹인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scher Bund = Schmalkaldic League)에 가입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1546년 7월 4일에 튀링기아의 이흐터스하우젠(Ichtershausen)에서 모여 황제와 교황의 연합군에 대항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교황이 결성한 군대가 독일을 향해 출발했다. 초반에는 개신교 동맹군이 승전했으나, 얼마 후에 승기는 황제 칼 5세에게로 넘어갔고 1547년 봄에 황제는 승자로 남부 독일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이 때 스트라스부르도 3월 21일에 항복했고 시 대표자 야곱 슈투름(Jacob Sturm)이 황제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다. 6월 19일,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가 황제에게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황제와 교황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sup>40)</sup>

전쟁이 발발하자, 스트라스부르 목사들은 한 달에 한 번 ‘회개의 날’을 지키기 시작했고 또한 매주 화요일 대성당에서 ‘회개의 설교’를 선포했다.<sup>41)</sup> 다른 종교개혁자들처럼 부씨도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더 큰 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부씨는 이런 회개와 순종이 단순히 정부나 목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 시기에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진정한 기독교 종교개혁을 위해 “기독교 공동체”라는 소그룹 모임이 등장하는데, 부씨는 이런 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한 주창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결성한 주동자이기도 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스트라스부르 교회 전체의 통일성과 이 교회지체인 구성원들의 거룩성을 추구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사도성에 충실하기를 소망했던 부씨 교회론과 일맥상통하는 모임이었다.<sup>42)</sup> 부씨는 각 교구의 “기독교

40) Greschat, *Martin Bucer*, 217-18.

41) Greschat, *Martin Bucer*, 219.

42) Gottfried Hammann, “Ecclesiological motifs behind the creation of the 'Christlichen

공동체” 모임에 대한 순차적 단계를 제시했는데, 그 첫 단계는 온 교회가 설교단에서 ‘바른 기독교 공동체(혹은 교제)에 관하여’ (von rechter Christlicher gemeinschaftt) 부지런히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정부가 세운 교회감독관이 선량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모두 교회의 유익과 선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온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이다.<sup>43)</sup>

1547년 4월 11일자로, 부처와 켈, 바울 파기우스(Paul Fagius), 요한 마르바흐(Johannes Marbach) 등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들은 “조악한 악습의 철폐와 하나님의 법과 규율의 수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기독교 윤리를 강화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고 회중은 각자 회개와 교회 규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행동지침서와 같았다.<sup>44)</sup> 시의회는 이런 교구의 자치 모임을 고운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허락할 수 없었다. 10월 31일, 시의회는 목사들이 회중적인 교회 치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도마교회와 젊은 베드로교회의 목사들뿐만

---

Gemeinschaften’,” in Wright, ed., *Martin Bucer*, 129-143. 버넷은 부처의 ‘기독교 공동체’는 각 교구의 자치적 교회치리 모임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통일된 권위 아래의 제네바 교회치리회(Consistorium = Consistoire)와 구별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 Burnett, *The Yoke of Christ*, 206.

43) MBDS 17, 193 (*Von der Kirchen mengel vnd fahl*): “Wir haben auch bißher in dißer sachen ordenlich gehandeltt, erstlichen der gantzen gemeind von der kanzel von rechter Christlicher gemeinschaftt fleißigen vnderrichtt gethon, Demnoch vnserer von der Oberkeit geordnete kirchenpfleger mitt sampt andern, die wir guthertzig zusein verhofft, sonderlich daruber angesprochen, Zum Dritten befunden, das alle die, so ein liebe zu dem heiligen Euangelio Haben vnd vmb Gottes wort eiffern, sollich vnser furnemen fur notwendig, nutz vnd gut der kirchen erkant haben vnd von gantzem hertzen begert, das der herr gnad geben wolte,…”

44) 원문 제목과 내용은 다음 참조. “H. Mathei Zell, Buceri, Vagij et D. Marpachij bedencken: Wegen abschaffung grober laster vnd auffrichtung gueter ordnung vnd disciplin,” in MBDS 17, 207-44.

아니라, 빌헬름교회와 니콜라교회의 목사들까지도 이미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세웠다.<sup>45)</sup>

11월 7일에 시의회가 부씨에게 동조하는 목사들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명령을 내리자, 이 명령에 반대하여 부씨와 파기우스, 그리고 동료 목사인 요한 랭글린(Lenglin)과 요한 마르바흐는 11월 9일에 ‘기독교 공동체’의 목적과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글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는데,<sup>46)</sup> “짧은 지침과 근거,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치리를 세우고 시행하기”가 그것이다.<sup>47)</sup> 이 글에서 그들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다양한 직분이 필요한데, 특히 설교자와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가 모든 교회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가르치고 교화하고 훈계하는 일을 위해 조력자들이 필요하며, 특히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는 반드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8)</sup>

자율적인 교회 치리제도의 ‘기독교 공동체’의 교구별 모임은 권력자들의 거센 저항과 방해를 받고 일부 동료들과 시민들의 미온적 태도에 가로막혀 사라질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8년 1월 25일 시의회는 승인을 얻어 큰 소리로 낭독되는 궤거를 이루었다.<sup>49)</sup> 하지만 부씨가 의도했던 대로 교회치리의 자치적 독립성을 공적으로 보장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씨의 계획은 실패했다. 부씨와 파기우스는 전쟁의 패배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엄격한 규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 보았던 반면에, 야곱 슈투름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황제가 강요한 ‘잠정안’의 수용만이 황제의 위협

45) Greschat, *Martin Bucer*, 220-21.

46) Greschat, *Martin Bucer*, 221.

47) 원문 제목과 내용은 다음 참조. “Kurtzer vnderricht vnd grunde, christliche gemeinschafft vnnd zucht anzurichten vnd zuhalten,” in *MBDS* 17, 260-90.

48) Greschat, *Martin Bucer*, 222.

49) Greschat, *Martin Bucer*, 220.

으로부터 도시를 구할 유일한 방도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양쪽으로 갈라진 두 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봉합되기느커녕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 2.4. 부써와 영국 종교개혁

대립과 갈등은 1549년 3월 1일, 주교와 시의회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써와 파기우스가 시당국에 의해 해임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소식을 당사자들에게 전한 사람은 아곱 슈투름이었다. 부써와 파기우스는 3월 3일에 고별설교를 하고 23일에는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강의를 함으로써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 한 후, 4월 5-6일 밤에 몇몇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도시를 떠났다.<sup>50)</sup> 망명객의 신분으로 스트라스부르에 들어온 부써는 설교 사역으로 시작하여 25년 동안 목회 사역과 도시 종교개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으나, 아쉽게도 개혁주의 교회의 도시로 개혁하는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채 영국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다.

4월 7일, 부써와 파기우스 일행은 자신들의 안내와 통역을 맡을 사람과 합류했는데, 그는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 목회했던 발레랑 풀랭(Valéland Poullain)이었다. 4월 18일 칼레(Calais)에 도착한 일행은 5일간 머문 후, 23일에 출항하여 5시간 만에 해협을 무사히 건너 도버(Dover)에 도착했고, 런던(London)에 도착한 날은 4월 25일이었다.<sup>51)</sup> 부써는 영국 왕 헨리 8세가 캠브리지(Cambridge)대학교에 마련한 흠정신학교수직을 맡았다. 스트라스부르의 동료 파기우스가 영국에 도착한 그 해 11월에 만45세의 나이로 죽자, 늙고 병약한 육체에 향수병까지 앓던 부써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 심지어 캠브리지대학 설립 이래 최초로 수여된 명예신학박

50) Greschat, *Martin Bucer*, 232.

51) Greschat, *Martin Bucer*, 233-234.



사 학위(1550년 4월 4일)를 받은 사실조차도 별 위로가 되지 않았다.<sup>52)</sup> 영국에서도 스트라스부르에서처럼 부세의 최대 관심은 교회였다. 이 사실은 그가 1550년 1월 13일 혹은 14일에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던 것,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성찬 논쟁과<sup>53)</sup> 요한 아 라스코(Johannes á Lasco)의 성찬 논쟁<sup>54)</sup> 및 요한 후퍼(John Hooper)의 의복 논쟁<sup>55)</sup> 등과 관련한 부세 자문의 공통점이 최대한 교회 혼란과 분열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크랜머(Cranmer)가 요청한 1549년의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에 대한 평가서를 1551년 1월 5일에 완성했는데, 여기서 개혁교회의 교리에 부합하는 철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것,<sup>56)</sup> 영국 왕 에드워드 6세(Edward VI)에게 헌정하기 위해 작성한 논문으로 1550년 10월 21일에 친구 요한 쉼커(John Cheke)에게 보내었으나, 1557년에야 바젤에서 출간된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가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다는 것<sup>57)</sup> 등을<sup>58)</sup> 통해

52) Greschat, *Martin Bucer*, 240-241.

53) 이 논쟁과 부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arvin Walter Anderson, *Peter Martyr A Reformer in Exile (1542-1562): A chronology of biblical writings in England & Europe* (Nieuwkoop: B. de Graaf, 1975), 101-115; Salvatore Corda, *Veritas Sacramenti: A Study in Vermigli's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Zürich: Theologische Verlag, 1975), 58-78. 코르다는 버미글리의 성찬론이 부세보다는 불링거의 성찬론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 내린다.

54) 이 논쟁과 부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ermann Dalton, *Johannes a Lasco: Beitrag zur Reformationgeschichte Polens, Deutschlands und Englands* (Gotha: Friedreich Andreas Perthes, 1881), 334-65; Richard Kruske, *Johannes a Lasco und der Sakramentsstreit.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Reformationszeit* (Aalen: Scientia Verlag, 1972. Neudruck der Ausgabe Leipzig 1901), 1-23, 203-206.

55) 의복 논쟁과 부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John Henry Primus, *The Vestments Controversy: An Historical Study of the Earliest Tensions with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e Reigns of Edward VI and Elizabeth* (Kampen: J. H. Kok, 1960), passim. 특히 43-55.

56) 공동기도서에 대한 부세의 평가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Edward Charles Whitaker, ed. & trans., *Martin Bucer and the Book of Common Prayer* (Great Wakering: Mayhew-McCrimmon, 1974).

57) *MBDL* 15, LIV-LIX (*De regno Christi*); *MBDL* 15bis, VI-VII (*Du royaume de Jésus-Christ*).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부셔는 1551년 2월 28일 저녁에 자신의 침대에서 만59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다.<sup>59)</sup>

### 3. 부셔의 목회지론

목회 사역을 직접 다룬 출판물 가운데 최초의 종교개혁 저술은 1524년 3월에 출간된 츠빙글리(Zwingli)의 <목자>(Der Hirt)인 것으로 보인다.<sup>60)</sup>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참된 기독교 목자들을 구약의 거짓 목자들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목자들을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지만, 정작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다루지는 않는다.<sup>61)</sup>

반면에 부셔의 『참된 목회와 바른 목회사역에 관하여』는 목회와 목회자가 무엇인지 정의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목회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회 신학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6세기 개혁과 종교개혁자 가운데<sup>62)</sup> ‘목회’라는 단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에서 목회 전반을 논한 최초의 저술가는 부셔일 것이다.

58) 참조. Greschat, *Martin Bucer*, 240-252.

59) Greschat, *Martin Bucer*, 255. 엘스는 부셔의 죽음을 1551년 3월 1일 오전으로 추정한다. 두 날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astings Eells, *Martin Bucer*, 421, 516 각주 117.

60)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192.

61) Huldrych Zwingli, *Schriften I. Im Auftrag des Zwinglivereins*, eds. Thomas Brunnschweiler & Samuel Lutz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243-312 (*Der Hirt*).

62) ‘목회’를 다룬 대륙의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192-209.

### 3.1. 교회직분과 목회자

부써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나라 즉 교회를 친히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그분은 “하늘의 왕”(der König der himel)이요, 교회는 “천국”(das reich der himel)이다.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그분은 자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제자의 스승으로, 양의 목자로, 지체의 머리로, 신부의 신랑으로, 환자의 의사로, 그리고 죄인의 심판자요 치리자로 다스리신다.<sup>63)</sup>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와 양육을 이루신다. 따라서 “교회사역의 능력과 공로는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sup>64)</sup> 성경에는 다양한 교회 사역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목자들과 교수들과 구제사역자들”(hirten und lerer und Almusendiener)을 부써는 교회의 항존 직분 즉 “주께서 모든 시대에 자신의 교회에 주시는 보편적인 사역자들로”(die der Herre seiner Kirchen gibt zu aller zeit) 간주한다.<sup>65)</sup>

여기서 목자 직분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포함되는데, 부써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 두 직분 모두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 즉 목회자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서 동등한 직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감독과 치리 사역을 맡은 장로와 달리 목사는 감독과 치리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설교 사역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sup>66)</sup> 부써는 모든

63) MBDS 7, 103(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46-47. 부써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점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의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과 동일하다. 참고. MBDL 15. De regno Christi, 3-6.

64) MBDS 7, 110 난외주(Von der waren Seelsorge): “Krafft und werck im Kirchendienst ist nit der diener, sonder Christi des Heren.” 참조. 『참된 목회학』, 64.

65) MBDS 7, 11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71.

66) 부써는 장로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장로, 즉 수(首)장로를 주교인 ‘감독’으로

시대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크게 두 부분, 즉 “목회의 사역과 궁핍한 자들을 위한 육적 돌봄의 사역”으로 나누는데,<sup>67)</sup> 후자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구제사역자, 즉 오늘날 집사다. 구제사역자 즉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재정 관리의 업무도 담당한다.<sup>68)</sup>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부씨는 구제사역자 즉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집사를 백성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 세워진 사역과 직분으로써 간주하여 영혼을 돌보는 목회사역과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처럼 부씨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직분을 바르게 정의함으로써 로마가톨릭 교회의 부패하고 왜곡된 직분 개념을 바로잡고 개혁하려고 한 것이다. 예컨대 교황과 주교의 직무를 영혼을 돌보는 목회 사역으로 분류하되, 치리와 설교를 함께 담당하는 감독인 목사 직무로부터 치리만 담당하는 감독인 장로 직무를 어느 정도 구분했고, 중세시대에 사라져버린 장로 직분을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부활시켰다.<sup>69)</sup> 또한 예비사제에 불과했던 집사를

---

분류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의미한다. 참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장로가 문자와 언어, 혹은 공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으로 교육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직무는, 비록 이것이 장로들에게 속할지라도, 주로 장로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인데, 이런 자에게 특별히 감독이라는 명칭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Hic autem obseruandum est, non oportere presbyteros omnes esse literis et linguis, uel etiam facultate publice docendi instructos, quod munus, quamquam sit etiam presbyterorum, praecipue tamen ad eum pertinet, qui primum inter presbyteros locum tenet, cui Episcopi nomen peculiariter attribuitur.*” in *MBDL* 15. *De regno Christi*, 60; *MBDS* 7, 113 난외주(*Von der waren Seelsorge*): “Jacobus war der furnamist under den anderen Eltisten und der obrist Bischofe, Darumb gieng Paulus zum ersten zu im und kamen die anderen Eltisten auch zu im.”, 124 난외주(*Von der waren Seelsorge*): “Es sind under die Eltisten fümernlich zu wehlen, die von kind uff in der h. schriftt, wie Timotheus war, geleret sind.” 참조. 『참된 목회학』, 74, 94.

67) *MBDS* 7, 114(*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76.

68) *MBDS* 7, 113-116(*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75-79.

69) *MBDS* 7, 119-12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82-87.

재정 관리와 빈자 보호를 관장하는 고유한 직분으로 회복시켰다.

### 3.2. 목회의 주요 사역

오늘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와 교리교육과 예식”(Predigt, Katechese, Liturgie)이다.<sup>70)</sup> 에스겔 34장 말씀의 양 비유를 근거로 부치는 “목회의 주된 사역 5 가지”(Die fünf funemen werck der Seelsorg), 즉 목회직과 참된 목회의 5가지 주요 사역을 제시하는데,<sup>71)</sup> 이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교회 밖에 버려진 양을 찾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처벌받아 쫓겨난 양을 복구하는 일, 죄로 인해 상처 입고 깨어진 양을 치료하는 일, 병약한 양을 건강하게 하는 일, 그리고 살찌고 강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첫째, 육적인 교만이나 거짓 예배를 통해 공동체로부터 떠나버린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와 그분의 공동체로 인도하기. 둘째, 한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인도되었지만 육적인 일이나 거짓 교리 때문에 다시 방황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셋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만 무겁게 타락하고 죄 짓는 자들을 도와 다시 참된 개선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넷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하고 어떤 특별한 거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조금 약하고 병든 자들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다시 바르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도록 하기. 다섯째, 그리스도의 무리와 양 우리에게

70) Thurneysen, *Die Lehre von der Seelsorge*, 15.

71) 이 다섯 가지 목회 사역은 부채의 마지막 저술에도 잘 나타난다. 참조. *MBDL 15. De regno Christi*, 61.

거하고 거의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기에 지치거나 병들지도 않은 자들을 모든 분노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항상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기.”72)

여기서 목회의 첫 번째 직무는 버려진 양, 즉 유대인들과 터키인들 같은 타종교인들, 혹은 심각한 기독교 이단들과 관련된 것으로 불신자들을 개종시키는 전도와 선교를 의미한다.73) 복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한다.74)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남녀노소와 지위고하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진리로 끈질기게 초청해야 하고 어떤 사람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75)

잃은 양을 찾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자이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만!”76) 잃은 양을 찾는 일은 정부와 정부 지도자들도 도와야 하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 이단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77)

두 번째 직무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 즉 데마와 한 때의 마가, 혹은 갈라디아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나진 않았으나 세상의 강력한 유혹이나 거짓 교리와 신앙으로 인해 배교하여 교회공동체로부터 출교 혹은 분리된 자들을 교회의 참되고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이기 위해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로 진리를 선포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다.

72) MBDS 7, 141(*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25.

73) MBDS 7, 15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48.

74) MBDS 7, 144(*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33.

75) MBDS 7, 145-46(*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34-36.

76) MBDS 7, 146(*Von der waren Seelsorge*): “..., in der gemeinschaft Christi ist allein das heil Christi zu empfangen und in der gantzen gemeinschaft Christi...” 참조. 『참된 목회학』, 137.

77) MBDS 7, 147-51(*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38-47.

거짓 교리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 필요한 이중적인 처방은, 한편으로 그들을 처벌하는 정부 통치자들의 채찍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독려하는 목회자들의 당근이다.<sup>78)</sup>

세 번째 직무는 상처 입은 양, 즉 죄 지은 성도를 적절한 권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죄 지은 자에 대한 권징의 순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먼저 범죄 사실을 아는 그의 이웃이 그를 사적으로 권면하고 경고하여 개선에 이르도록 하되, 이것이 소용없을 경우 그 다음으로 교회가 나서서 그를 온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개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처벌의 최종 목적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인데,<sup>79)</sup> 한 마디로 “그들의 삶의 완전한 회심과 개선”(ires lebens gantze bekerung und besserung)이다.<sup>80)</sup>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또한 정부 지도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죄를 지은 교인에 대한 처벌과 개선의 가장 큰 책임은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 즉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있다.<sup>81)</sup> 처벌과 치리의 문제, 즉 죄 지은 자에 대한 시벌과 해벌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독교 정부가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의 처벌과 치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부שר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육적인 권위만을 가진

78) MBDS 7, 154-57(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53-59.

79) MBDS 7, 157-158(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62-63.

80) MBDS 7, 16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72. 종교개혁의 중대 주제였던 ‘회개’의 문제를, 여기서 부שר 역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매우 깊이 다루고 있다. 참조. MBDS 7, 160-206(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67-238.

81) MBDS 7, 158-159(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164-166. 여기서 부שר는 상처 입은 양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이 그리스도 자신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임명하신 “자신의 하위목자들”(seine underhirten)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정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die Obren und die Seelsorger)이라고 설명한다.

세속 정부의 시민적 통치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장로들의 목회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sup>82)</sup>

“그러나 상처 입은 모든 양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싸매어지고 치유되어야, 즉 참된 신앙적 회개와 개선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과 교회의 영적 사역을 통해서만이 바르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일반적인 치리와 처벌 이상으로, 비록 이것이[정부의 치리와 처벌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이고 또한 정부가 이런 처벌에 너무나도 능숙하고 열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의 치리와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sup>83)</sup>

부씨에 따르면 영혼의 최고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부 통치자들의 치리와 나란히 교회의 영적 치리라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영적 치리는 정부의 시민적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교회에 주신 천국을 묶고 푸는 열쇠 권능에 근거한 것이다.

네 번째 직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연약하고 소심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거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sup>84)</sup> 부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재하는

82) MBDS 7, 188-189(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11-14.

83) MBDS 7, 190(Von der waren Seelsorge): “... sollen aber in der Christlichen gemeyn alle verletzeten schaf verbunden und geheylet, das ist, zu warer gleubigen rewe und besserung bracht werden; Die aber alleyn durch das Evangeli und den geystlichen dienst der kirchen recht erwecket würt. Derhalben ist uber die gemeine zucht und straf der oberkeyt, wenn dieselbige gleich gantz Christlich und in der straf auch geflissen und eiferig ist, als vonnoten, das die gemeynden Christi eben ir eygne zucht und straf haben;...” 참조. 『참된 목회학』, 215.



모든 연약함은 신앙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온다.”<sup>85)</sup> 연약한 양들을 강화하고 위로해야 할 책임은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그 다음으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담하는 자들에게, 즉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에게 있다. 또한 정부 지도자들도 교회가 참된 목회자를 모시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직무는 건강한 양들, 즉 비록 결점이 없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경건한 신자들을 사악한 염소나 비열한 양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좋은 꼴로 바르게 먹이는 일이다.<sup>86)</sup> 건강한 양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은 때론 양의 가족을 쓰고 자신을 위장한 더러운 양들과 거짓 염소들을 가려내야 하고, 교회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추방할 필요가 있다.<sup>87)</sup>

이 다섯 가지는 사실상 부채가 제시하는 “목자 직분의 목적과 목표”(der *zweck und zil des hirtenampts*)이기도 한데,<sup>88)</sup> “이제 이 모든 것은 오직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 경고하는 일, 처벌하는 일, 위로하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도 다시 화해하는 일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달성되어질 것이다.”<sup>89)</sup> 장로들(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즉 목회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목양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최고의 기술과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다.<sup>90)</sup>

84) MBDS 7, 206-21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39-51.

85) MBDS 7, 209 난외주(*Von der waren Seelsorge*): “Alle schwache in Christlichem leben kommet auß schwache des glaubens.” 참조. 『참된 목회학』, 125.

86) MBDS 7, 212-215(*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53-60.

87) MBDS 7, 219-22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66-70.

88) MBDS 7, 116-117(*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79-80.

89) MBDS 7, 117(*Von der waren Seelsorge*): “Nun dis alles ausgericht und erlanget werden allein durch leren, vermanen, warnen, straffen, trosten, begnadigen und mit dem Herren und seiner Kirchen wider versunen;...” 참조. 『참된 목회학』, 80.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자의 수는 각 교회의 필요한 만큼 세워야 하겠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가능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목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좋다. 즉 부씨는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가능한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포함한 여러 장로들, 즉 장로회를 통해 다스려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장로교 형태다.<sup>91)</sup>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순종과 존경이 필수적이라고 부씨는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복음에 순종하듯이 경건한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sup>92)</sup> 세상적인 칼과 모든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gotteswort) 즉 영적인 칼과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sup>93)</sup>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인 참된 왕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눅 10:16)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마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이다.(요 20:21)”<sup>94)</sup>

90) MBDS 7, 224(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73-74.

91) MBDS 7, 118(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82.

92) MBDS 7, 232(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89-90.

93) MBDS 7, 236(Von der waren Seelsorge). 참조. 『참된 목회학』, 296-97.

94) MBDL 15. De regno Christi, 15-16: “Veri etenim reges, qui nulli quam Christiani sunt, norunt se Christum audire, cum ueros eius audiunt ministros; Christum adsper[16]nari, cum illos contemnunt. Luc. 10 [16]. Mittit enim Dominus ministros suos, sicut misit ipsum pater. Ioan. 20 [21].”

## 4. 나오면서

마틴 부씨는 20세기 초반까지 잊혀졌던 인물이었으나 20세기 칼빈 연구와 교회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는 칼빈 신학, 특히 그의 교회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자로 밝혀지면서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로 평가되고, 또한 16세기에 가장 적극적인 광복의 교회연합 운동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회연합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래서 부씨는 단순히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종교개혁자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sup>95)</sup>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씨는 그리스도의 도시 스트라스부르를 개혁하기 위해, 엄밀하게는 그 도시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헌신했던 인물이다.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자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목회를 위해 소비했다. 그는 목회를 위해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주지의 사실은 다양한 부씨 저술의 대부분이 스트라스부르 교회의 목회를 위한 것이었는데, 심지어 그의 주석조차도 목회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부씨가 교회연합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로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교회연합가가 아닌, 목회자 즉 목사다. 부씨는 종교개혁 교회의 목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목회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부씨는 결혼한 후 목회자가 된 최초의 1세대 종교개혁자다. 목회자의 결혼에 관한 한 부씨는 스트라스부르 도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개혁 지역의 목회자들에게도 최상의

95) Hastings Eells, *Martin Bucer*, 51: "He was not the "Reformer of Strasbourg" alone, he was rather the Reformer of Central Europe."

선례와 모범이었다. 또한 부씨는 목회자가 결혼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논증하기도 했다.

부씨는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 초기부터 미사와 예전에 관한 개혁을 시작함으로써 1520년대 스트라스부르를 종교개혁 도시로 만들 수 있었는데, 1528년 베른 논쟁의 결과도 이 도시 개혁에 한 몫 했다. 1530년대에는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목회에 관한 1538년의 저술을 통해 스트라스부르의 교회가 어떤 목회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1540년대는 부씨에게 개인적으로나 시정부와의 관계에서나 대외적으로나 불행한 시기였고 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씨는 참된 목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소그룹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철저한 교회 감독과 치리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결국 잠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되었고 스트라스부르의 목회를 내려놓아야 했다.

부씨는 자신의 목회지론을 5가지 양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기술한다. 목회는 영혼을 돌보는 기술과 방법이고 목회의 목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한 개선인데, 이것을 성취하는 목회의 최고 원리는 사랑이다. 교회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야 하고, 약하고 병든 양들을 강하고 건강한 양으로 만들며 좋은 말씀의 꿀을 먹이는 것이 참된 목회자다. 영적 치리의 독립성, 즉 목회자들의 감독과 권면과 처벌 및 해벌의 권리는 천국을 묶고 푸는 열쇠 권능에서 기원하는 것이다.